

청동기시대 춘천지방의 자연환경과 농경

이 의 한*

Natural Environment and Agriculture in Chuncheon Region during the Bronze Age

Eui-Han Lee*

요약 : 춘천지방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은 주로 범람원에 분포한다. 이 지역의 범람원은 대부분 고도가 높아 홍수시에도 물에 잘 잠기지 않는 자연제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제방은 주변의 구릉지나 곡간충적지보다 농경에 있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청동기시대 춘천지방의 주민들은 자연제방에 거주하면서 농경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연제방의 지형적인 특성과 토양을 고려하면 당시 이 지역에서는 벼농사보다 밭농사 중심의 농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춘천지방, 청동기시대, 범람원, 자연제방, 농경, 밭농사

Abstract : The remains of the Bronze Age in Chuncheon region are mostly distributed on the floodplain. The floodplain in this region is made up mainly of natural levee that is high in height and is not flooded with water. The natural levee has very advantageous conditions in agriculture compared with other place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people in Chuncheon region during the Bronze Age inhabited on the floodplain and engaged in agriculture. Considering the geomorphic features and soil of natural levee, it is believed that the agriculture centered on dry-field farming was done in this region at that time.

Key words : Bronze Age, Chuncheon region, Floodplain, Natural levee, Agriculture, Dry-field farming

1. 서론

고고학은 물질적 자료를 통해 과거의 문화사와 생활사를 복원하고, 문화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물질적 자료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옛 사람의 삶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과거 인간의 삶이 자연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다(이의한, 2000). 따라서 고고학 연구가 보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적 자료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 관한 자료 즉 자연지리학적 자료까지도 포괄해야 한다. 고고학에서는 자연지리학적 자료(개념과 방법론)를 도입하여 연구에 이용하는 분야를 지리고고학(geoarchaeology)이라고 한다(Bell and Walker, 1992).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청동을 사용하게 된 것은 기원전 2,300~2,200년경 중국 청해성(青海省)의 제가문화(齊家文化)로 알려져 있다(Rutherford, 1969).

그후 중국에서는 청동기의 제작기술이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13세기경부터 기원전 3세기경까지 계속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주민들은 강이나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낮은 구릉지에 거주하면서 농경에 종사하였다. 당시의 주민들이 구릉지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구릉지가 하천변에 비해 홍수의 발생가능성이 낮으면서도 농경과 교통은 물론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방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은 대부분 구릉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손꼽히는 부여 송국리유적과 여주 혼암리유적도 그러한 예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반드시 구릉지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한강 상류인 춘천지방의 경우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범람원에 집중되어 있다. 필자는 춘천지방의 청동기시

* 강원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Social Studies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euihan@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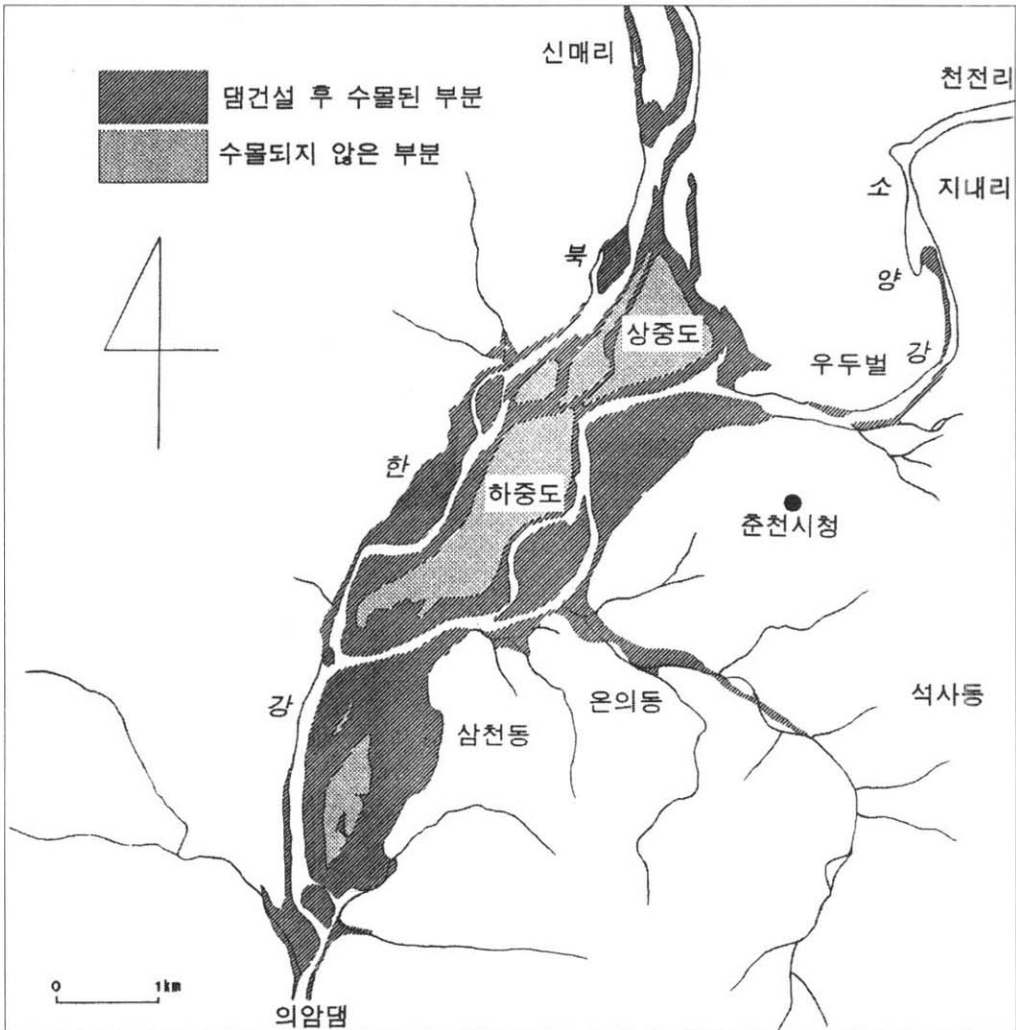


그림 1. 춘천지방의 총적지

대 유적과 유물이 다른 지방의 그것들과 달리 범람원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연지리학적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와 함께 유적과 유물의 특징, 구체적인 분포상황, 당시의 농경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여러 차례의 현지답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춘천지방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은 여러 문헌자료를 통해 비교적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 중 지식묘와 석관묘 같은 분묘지는 연구대상

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분묘지와 당시의 사람들이 실제로 살았던 생활공간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의한, 2000). 필자는 청동기시대 춘천지방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생활유적과 유물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춘천지방은 북쪽의 오봉산(五峰山, 779m), 서쪽의 삼악산(三岳山, 654m), 동쪽의 대룡산(大龍山, 899m), 남쪽의 금병산(金屏山, 652m)으로 둘러싸여 있는 타원형의 분지이다. 분지 내에는 낮은 구릉지들이 잔구로 남아 있다. 춘천의 진산(鎭山)인 봉의

산(鳳儀山, 302m)은 분지 중앙에 원추 모양으로 우뚝 솟은 잔구이다. 춘천지방에는 북한강과 소양강을 따라 충적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의암댐의 건설로 일부 충적지가 수몰되었으나 아직도 소양강 북안의 우두벌, 의암호의 중도 같은 넓은 충적지가 곳곳에 남아 있다(그림 1). 이들 충적지는 경사가 0~2%로 아주 완만한 편이다. 충적층의 두께는 우두벌에서 약 10m 내외, 천천리에서 약 5~11m, 중도에서 약 9m 그리고 신매리에서 약 8~15m에 이른다(春川百年史編纂委員會, 1996).

한편 춘천지방의 지질을 살펴보면 분지 주변의 산지가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인 경기편마암복합체(京畿片麻岩複合體)와 춘천누층군(春川累層群)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분지 내에는 중생대에 관입(貫入)한 춘천화강암(春川花崗岩)이 널리 분포한다(春川百年史編纂委員會, 1996). 이는 풍화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변성암류와 상대적으로 약한 화강암의 차별침식으로 인하여 춘천분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변성암류는 오랜 풍화에 견디어 결국 산지로 남게 되었고, 화강암은 풍화로 인해 침식되면서 전형적인 분지를 이루게 되었다.

2.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만 볼 때 청동기시대는 청동으로 도구를 만들어 쓰던 시대를 말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청동기시대에 이르더라도 일반생활과 생산에서 쓰이는 도구가 청동으로 제작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 이유는 청동기제작에 필요한 원료수급과 제작과정상의 어려움 그리고 깨지기 쉬운 재질상의 문제 때문이었다. 결국 청동기시대에도 청동기는 소수의 권력자들만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었던 특수품이자 신분상징적 물품이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에서 청동기가 거의 출토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의 도구들이 석기로 제작된 청동기시대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석기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석기의 제작기술이 뛰어났고 석기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시기였다(裴基同, 1997).

춘천지방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도 청동기는 거의 출토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에서 발굴된 청동

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매리

행정구역상 강원도 춘천시 서면에 속해 있는 신매리는 의암호를 사이에 두고 중도의 북서쪽 대안에 위치해 있다. 의암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중도와 신매리가 육지로 이어져 있었으나 의암호가 생기면서 중도는 섬이 되었다. 신매리 일대는 토사가 쌓여 형성된 범람원으로 신석기시대 이래의 많은 유적들이 발견된 곳이다(사진 1). 특히 신매리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은 그 동안의 발굴과 조사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1) 주거지

신매리에서 발굴된 주거지는 1981년과 1984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3기와 1984년 한림대 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3기 등 총 6기가 있다. 이중 단애면에 노출된 4기는 하천침식으로 인해 상당한 부분이 파괴되었으나, 나머지 2기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주거지의 전체적인 형태나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981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된 2기의 주거지는 반굴형주거지(半堅穴住居址)로 하층주거지가 폐기된 후 그 위에 상층주거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같은 자리에 겹쳐져 있는 이 주거지들은 평면형태가 장방형(長方形)으로 같고, 빗질정면(整面)된 공렬토기(孔列土器), 홍도편(紅陶片) 등이 공통적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시기적인 차이가 그리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주거지의 면적은 상층주거지가 약 20㎡, 하층주거지가 약 25㎡ 정도로 작은 편이며 4~5인 정도의 가족이 주거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신매대교 건설부지에서 한림대 박물관에 의해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15기와 관련소형유구 14기가 발굴되었다. 이러한 유적은 신매대교 건설부지를 중심으로 충적평야가 전개되는 신매리 전체에 걸칠 것으로 판단된다. 탄소연대측정의 결과 신매리유적은 기원전 10세기 전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림대학교 박물관,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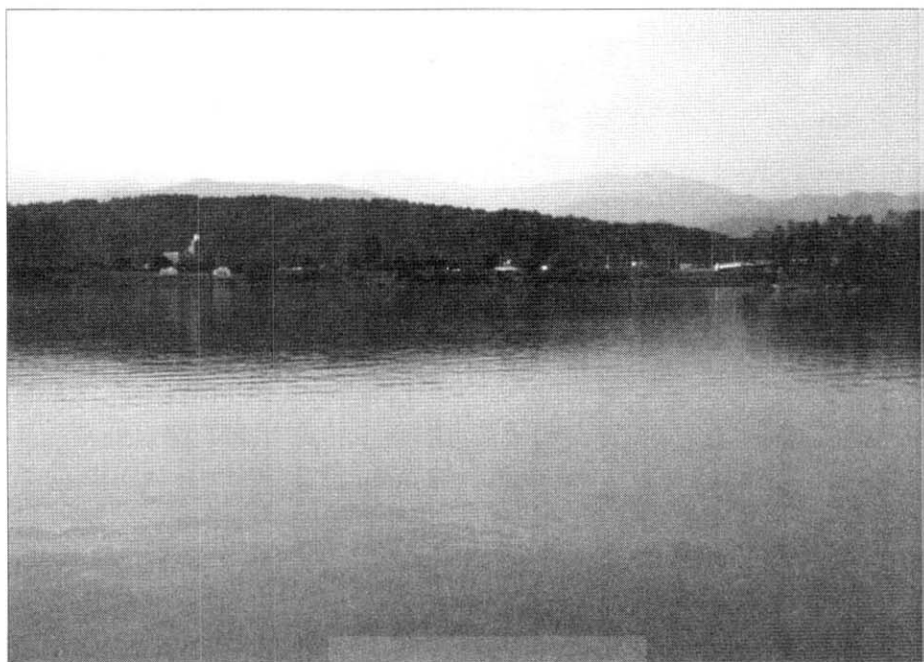


사진 1. 신매리의 전경



사진 2. 하중도의 전경

(2) 토기 및 토제유물

신매리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의 토기는 모두 작은 조각들 뿐이라 토기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작은 조각들을 통해 당시에 무문토기의 한 형식인 공렬토기(구멍무늬토기), 구순각목토기(口脣刻目土器: 골아가리토기), 홍도(紅陶: 붉은간토기), 갈색마연토기(褐色磨研土器: 갈색간토기), 변형각형토기(變形角形土器: 변형팽이토기), 흑도(黑陶: 검은간토기) 내반구연토기(內反口緣土器: 아가리가 안으로 오므라든 토기), 외반구연토기(外反口緣土器: 아가리가 밖으로 바라진 토기) 등이 사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밖에 토기편을 갈아 만든 방추차(紡錘車: 가락바퀴)와 토제(土製) 어망추(漁網錘: 그물추)가 출토되었다.

(3) 석기

신매리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의 석기로는 석촉(石鏃: 돌화살촉), 즐형(櫛形) 반월형석도(半月形石刀: 반달돌갈), 단주형(短舟形) 반월형석도, 석착(石鑿: 돌끌), 다두석부(多頭石斧: 톱니날도끼), 환상석부(環狀石斧: 바퀴날도끼), 지석(砥石: 숫돌), 방추차, 돌돈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량의 석기 파편이 출토되었다.

2) 중도

의암댐의 건설로 주변 저지대가 수몰되면서 섬이 된 중도는 토사가 쌓여 형성된 범람원이다. 중도는 의암댐이 건설된 후에도 하나의 섬이었으나 소양강 뱃터에서 금산리를 왕래하는 뱃길을 만들면서 섬의 중간 부분을 끊어 두 개의 섬이 되었다. 상중도와 하중도로 분리된 중도에는 신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선사시대의 유적이 널리 나타나는데 특히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하중도 서안에서 많이 볼 수 있다(사진 2). 이곳에서는 청동기시대의 각종 토기류와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1) 토기 및 토제유물

중도의 토기는 정선된 태토에 고운 장식질 모래나 운모를 섞은 연질의 적갈색 평저무문토기가 대부분이며, 무문토기의 태토에 즐문을 새긴 즐문토기도 일부 출토되었다. 무문토기와 즐문토기가 함

께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중도유적은 과도기적 성격을 띠는 유적으로 생각된다. 무문토기는 입술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굽은 것이 대부분이나 입술 밑으로 작은 구멍을 뚫은 공렬토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일부 토기에서는 기장이나 피갈은 곡식자국과 작은 나무 열매의 씨가 나오기도 하였다(國立中央博物館, 1980; 임세권, 1980). 또한 무문토기 중에는 밑바닥에 떡갈나무잎으로 생각되는 잎의 줄거리 흔적이 뚜렷이 새겨져 있는 것도 있다. 이같은 흔적은 토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붙는 것을 방지하고 토기가 보다 잘 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한 나뭇잎의 흔적으로 보인다(최복규·정연우, 1982). 이밖에 토제 방추차와 어망추가 출토되었다.

(2) 석기

중도에서 출토된 석기는 석촉, 석창(石槍: 돌창) 끝, 석검(石劍: 돌갈), 단주형 반월형석도, 장주형(長舟形) 반월형석도, 석부(石斧: 돌도끼), 유구석부(有溝石斧: 홈자귀), 경작용 석기(돌보습, 돌팽이), 연석봉(礮石棒: 갈돌), 돌망치, 지석, 방추차, 관옥(管玉: 대롱구슬) 등이 있다. 석기 중에는 수렵, 어로 등에 관계된 것이 많으나 반월형석도, 유구석부, 경작용 석기, 연석봉 등 농경과 관계된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석기의 석질을 살펴보면 석촉과 석창끝은 세일과 활석, 반월형석도는 반암, 석부와 유구석부는 화강암과 사암으로 대부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주민들이 석기의 종류에 따라 특정 암석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삼천동

삼천동 유물산포지는 의암댐에서 상류쪽으로 약 3.5km 떨어진 북한강변의 범람원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유구석부, 석부, 석촉, 어형(魚形) 반월형석도, 토제 어망추, 토제 방추차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유구석부에는 조타흔이 많이 남아 있고, 날카로운 사각인(斜角刃)이 잘 마연되어 있다. 유구석부의 종단면은 약간

배가 부른 장방형, 횡단면은 터널형으로 두부(頭部)가 둥글게 처리되었고, 호형(弧形)의 홈이 있다. 한편 한쪽이 결손된 반월형석도는 배면(背面)과 인부(刃部)가 모두 외만(外彎)되어 있다. 날은 외날이며, 두 개의 구멍이 맞닿어져 있다.

4) 천전리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는 소양댐에서 하류쪽으로 4km 가량 떨어진 소양강변의 범람원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10여기의 지석묘가 발견된 천전리에는 청동기시대의 취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지석묘 주변에서는 어골문양(魚骨文樣)의 즐문토기편, 공열토기편, 무문토기의 저부(底部), 흉도편 등의 토기편과 마제석촉, 석부재료(石斧材料)로 보이는 미완성의 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5) 지내리

천전리와 소양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내리는 구릉지 사이의 곡간충적지에 자리하고 있다. 지내리 일대에서는 다수의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물이 나온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6) 온의동

춘천시 온의동은 중도의 남동쪽 대안에 위치해 있다. 과수원이나 밭으로 개간된 온의동의 구릉지에서는 각종 무문토기류와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1) 토기

무문토기는 적갈색 평저토기(平底土器 : 납작밑토기)가 대부분이며 공열토기, 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 : 덧띠토기), 고배형토기(高杯形土器 : 굽다리접시형토기), 우각형(牛角形) 손잡이 등이 섞여 있다. 점토대토기, 고배형토기, 우각형 손잡이 등은 대개 함께 출토되며 무문토기 중 가장 늦은 시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적갈색 평저토기와 공열토기는 점토대토기, 고배형토기, 우각형 손잡이 등과 시기를 달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석기

온의동에서 출토된 석기는 대부분 마제석기로 돌도끼(양날도끼와 외날도끼), 대패날, 돌끌, 유단석부(有段石斧), 반월형석도, 석촉, 원반형 석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7) 석사동

석사동 유물산포지는 춘천교육대학교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석부, 석촉, 반월형석도편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석부는 일자형의 부신(斧身) 한쪽에 호형의 날을 양쪽에서 갈아 세운 합인석부(合刃石斧)이다. 부두(斧頭)는 약간 둥그스름하고, 전면이 매끄럽게 잘 마연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3. 청동기시대의 자연환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춘천지방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은 대부분 범람원에 분포한다. 특히 대규모 취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신매리, 중도, 천전리는 예외 없이 범람원상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한강 하류의 일산지방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낮은 구릉지 주변 곡저평야(谷底平野)의 토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었다. 가와지토탄이라고 불리는 이 토탄층에서는 볍씨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씨앗도 발견되었다(한국선사문화연구소·경기도, 1992). 곡저평야의 토탄층에서 유물과 볍씨를 포함한 각종 씨앗이 대량으로 발굴된 이유는 청동기시대 낮은 구릉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건기(乾期)에 단단하게 굳은 평탄한 곡저평야에서 일시적으로 생활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黃相一, 1998).

그렇다면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춘천지방에서는 대부분 범람원에서 발견되는데 반해 일산지방에서는 곡저평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청동기시대 서해안의 해수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강 하류인 일산지방은 감조구간(感潮區間)에 속하기 때문에 해수면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다. 황상일의 연구(1998)에 의하면 일산지방의 평균고조위해수면(현재 해발 4.7m)은 약 7,000

년 BP경에 해발 4.5m에 도달했고, 약 5,000년 BP 경에는 해발 5.5m에 이르러 약 3,200년 BP경까지 거의 정체하다가, 2,300년 BP경에 4.85m까지 하강하였다. 이후 평균고조위해수면은 다시 상승하여 기원 후인 1,800년 BP경에 Holocene의 최고수준인 해발 5.8m에 이르렀다. 즉 청동기시대에는 일산지방의 해수면이 현재의 그것보다 최저 10~20cm에서 최고 80cm까지 높았다. 해수면이 높았다는 사실은 홍수로 인한 범람의 위협이 높았고, 동시에 범람지역도 넓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만조와 홍수가 겹칠 때 한강의 수위는 크게 상승하였을 것이다. 지금도 홍수시에는 한강의 수위가 최고 8m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건설부, 1991). 더군다나 청동기시대에는 댐, 제방, 배수장 등의 수해방지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비가 내리더라도 홍수로 인한 피해가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또한 해수면 상승을 일으킨 기온의 상승은 강수량의 증가로 이어져 홍수의 빈도를 현재보다 증가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동기시대 일산지방의 범람원은 대부분 인간이 생활할 수 없는 상습침수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주민들은 상습침수지였던 범람원을 피해 낮은 구릉지에 거주하면서 건기에 단단하게 굳은 평탄한 곡저평야를 인간생활의 장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은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곡저평야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강 하구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한강 상류의 춘천지방은 일산지방과 달리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에도 하천의 수위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범람원에서도 고도가 높은 부분 즉 자연제방은 홍수로부터 비교적 안전하였음을 의미한다. 물론 당시에도 홍수는 자주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춘천지방의 범람원은 대부분 자연제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홍수시에도 물에 잘 잠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강 중상류에서는 자연제방의 발달이 뚜렷하나, 배후습지는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權赫在, 1999).

자연제방은 주변의 구릉지나 곡간충적지보다 농

경에 있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연제방의 토양은 구릉지나 곡간충적지의 그것에 비해 토심(土深)이 깊고 비옥하며 부드럽다. 한반도에서도 청동기시대에 이르면 목제농기구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池健吉·安承模, 1973). 자연제방은 토심이 깊고 토양이 부드럽기 때문에 목제농기구를 사용하기에 적합했을 것이다. 또한 자연제방은 구릉지나 곡간충적지에 비해 개간이 수월하고 개간과정에서 노동력도 덜 들어간다. 인구가 많지 않았던 청동기시대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구릉지나 곡간충적지의 개간은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곧 자연제방이 가장 경제적인 농경지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청동기시대 춘천지방의 주민들은 자연제방에 거주하면서 농경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홍수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농경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자연제방은 당시 춘천지방을 비롯한 대하천 상류 유역의 주민들에게 최적의 주거지이자 최고의 생활공간이었을 것이다.

한편 윤순옥과 황상일(1998)의 연구에 의하면 낙동강의 상류인 대구지방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자연제방과 선상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자연제방이 청동기시대 대하천 상류 유역의 주민들에게 최적의 주거지이자 최고의 생활공간이었다고 하는 앞의 가설과도 상당히 부합되는 내용이다.

4. 청동기시대의 농경

청동기시대 춘천지방 주민들의 삶은 당시의 유적과 유물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유물 중에는 각종 무기류, 어망추 등 수렵·어로와 관련된 것과 반월형석도(줄형, 단주형, 장주형, 어형), 경작용석기(돌괘이, 돌보습), 유구석부, 갈돌 등 농경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이는 청동기시대 춘천지방에서 수렵·어로와 더불어 농경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월형석도는 곡식의 이삭을 따는데 쓰였던 적수구(摘穗具)의 일종이다. 반월형석도의 형식은 재배되는 곡물의 종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줄형의 반월형석도는 한반도의 동북지역에서

기장을 비롯하여 수수, 콩, 팥 등의 밭작물을 수확하는 데 널리 쓰였던 농기구이다. 또한 장주형과 어형의 반월형석도는 중·남부지방에서 조, 기장, 수수, 콩 등의 수확구로 사용됨과 동시에 남경(南京), 혼암리(欣岩里) 등에서 벼의 수확구로도 이용되었다. 그러나 장주형의 경우 벼보다는 잡곡의 수확에 더 많이 사용되었고 어형도 최초 발생지인 홍산문화(紅山文化)의 적봉(赤峰)에서 잡곡수확용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장주형과 어형은 본래 잡곡수확에 쓰이다가 후에 벼농사용으로 전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단주형의 반월형석도는 한반도 서부와 남부, 일본 큐우슈우(九州)에 걸쳐 모두 벼농사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단주형이 처음부터 벼농사용으로만 사용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安承模, 1985).

이와 함께 춘천지방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는 돌괘이와 돌보습이 출토되어 농경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땅을 파거나 흙을 고르는 데 쓰였던 돌괘이와 땅을 갈아 일으키는 데 사용되었던 돌보습은 모두 굴경도구(掘耕道具)에 해당된다. 북한의 고고학계에서는 선사시대의 농경도구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원시농업이 괘이농사에서 보습농사로 발전하였다는 가설을 상정하고 있다(서국태, 1986).

한편 유구석부가 어떠한 용도는 사용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유구석부가 일종의 목공구로 쓰였을 것이나 때로는 간단한 굴경도구로도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金元龍, 1969; 盧熾眞, 1981). 또한 갈돌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낱알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를 내는 데 쓰였던 도구이다.

이러한 농경관련 유물들을 통해 청동기시대 춘천지방에서 농경이 본격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유물만 가지고 당시 농경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청동기시대 춘천지방의 농경형태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면 기존의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앞서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동기시대 춘천지방의 주민들은 수해로부터 안전하고 농사를 짓는 데도 유리한 자연제방에 거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자연제방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수렵과 어로 이외에 주로 어떤 작물들을 재배하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자연제방의 지형적인 특징과 토양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자연제방은 인공제방과 달리 지면이 넓고 평평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제방'처럼 보이지 않는다. 주변에 비해 고도가 다소 높아 물을 대기 어려운 자연제방에서는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벼농사를 지을 수 없다. 물론 지금은 양수기로 물을 퍼 올려 자연제방에서 벼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는 밭작물만 재배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지형도를 보면 이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1922년에 발행된 춘천지방의 1:50,000 지형도에서도 자연제방은 대부분 밭으로 표시되어 있다(그림 2).

토속어로 '보명개' 또는 '보명토'라고 불리는 자연제방의 토양은 배수가 잘 되고 보수력(保水力)이 매우 뛰어나다. 1:25,000 정밀토양도에 따르면 신매리, 중도, 천전리, 삼천동 등 청동기시대 춘천지방의 주민들이 주로 거주했던 자연제방의 토양은 중동통과 이현통으로 분류된다. 이들 토양의 표품(標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한 6지점 씩 모두 12지점에서 채취하여 미국 농무성의 입경기준(粒徑基準)에 따라 분석한 후 종합한 결과, 중동통은 세사(細砂)와 극세사(極細砂)를 중심으로 모래가 전체 토양의 69.6~76.0%, 미사(微砂)가 17.7~25.1%, 점토가 4.3~7.2%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현통은 미사가 전체 토양의 70.2~72.5%, 점토가 14.2~17.3%, 세사와 극세사를 중심으로 하는 모래가 11.9~13.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 이는 중동통과 이현통이 세사양토(細砂壤土)와 미사질양토(微砂質壤土)로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벼농사에 그리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토양은 보리, 밀, 감자, 고구마 등의 밭작물과 무, 배추 등의 소채류 재배지로서 매우 적합하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춘천지방의 자연제방은 지금도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토양의 비옥도를 나타내는 염기치환용량(me/100gr)을 살펴보면 중동통의 경우 Ap1층에서 8.40, Ap2층에서 6.70, C1층에서 6.80, C2층에서 4.00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현통의 경우에는 Ap1층



그림 2. 1992년에 발행된 춘천지방의 1:50000 지형도

에서 11.20, Ap2층에서 8.40, B층에서 7.10, C층에서 5.30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들 토양이 비교적 비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염기치환용량

이 높으면 높을수록 토양은 비옥하고, 토양 내의 영양성분이 작물에 이용되는 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토양입경분석결과

토양명	층위	깊이(cm)	자갈함량(%) (2mm 이상)	미 농무성법에 의한 토양입경분포(mm)%						
				극조사 (2-1)	조사 (1-0.5)	중사 (.5-.25)	세사 (.25-.10)	극세사 (.10-.05)	미사 (.05-.002)	점토 (.002 이하)
이현	Ap1	0-12	-	0.9	3.0	1.7	4.6	3.1	72.5	14.2
	Ap2	12-24	-	0.8	2.5	1.1	5.0	3.1	70.2	17.3
	B	24-75	-	0.5	1.5	1.5	4.1	6.2	70.5	15.7
	C	75-120	-	0.4	1.7	3.6	3.9	2.3	71.6	16.5
중동	Ap1	0-12	2.8	5.8	2.2	10.9	29.7	21.0	25.1	5.3
	Ap2	12-27	-	1.8	1.2	8.8	41.7	22.5	17.7	6.3
	C1	27-45	-	0.9	0.9	13.1	34.7	22.5	23.6	4.3
	C2	45-100	-	1.3	1.3	16.0	36.4	19.5	18.3	7.2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동기시대 춘천지방에서는 벼농사보다 밭농사 중심의 농경이 이루어졌고, 비교적 생산력이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중도에서 출토된 토기에서 기장이나 피 같은 곡식자국이 발견된 것은 밭농사 중심의 농경이 이루어졌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좋은 증거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알려진 황해도 봉산군 지탑리(智塔里)유적에서는 피 또는 조로 생각되는 탄화된 곡물이 돌낫, 돌보습 등의 농구와 함께 출토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1997). 이는 신석기시대에 이미 피 또는 조의 재배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동기시대에 접어들면 한반도 각지에서 기장을 비롯한 각종 잡곡들이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춘천지방의 벼농사는 철기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중도의 초기 철기시대유적에서 김해식토기와 함께 출토된 무문토기의 저부편(底部片)에는 벼씨자국이 남아 있다. 이는 초기 철기시대에 춘천지방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또한 벼농사가 청동기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춘천지방의 범람원이 대부분 자연제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동기시대에 이미 벼농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유적의 입지조건, 출토곡물, 고대 문헌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한반도의 초기 농경은 밭농사가 우세하거나 밭농사와 벼농

사가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벼농사는 배후 습지의 외연부(外緣部)와 곡저평야 같은 곡간(谷間)의 저습지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만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郭鍾喆, 1992).

물론 당시 주민들의 삶을 농경이라는 하나의 측면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생활공간이 하천변의 범람원이었고 각종 무기류나 어망추 같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청동기시대 춘천지방의 주민들이 농경 이외에도 어로나 수렵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하천변 범람원은 생물학적인 생산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로와 수렵에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wn, 1997).

5. 요약 및 결론

춘천지방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은 대부분 범람원에 분포한다. 반면 한강 하류의 일산지방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낮은 구릉지 주변 곡저평야의 토단층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청동기시대 서해안의 해수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강 하류인 일산지방은 감소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해수면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다. 청동기시대에는 일산지방의 해수면이 현재의 그것보다 최저 10~20cm에서 최고 80cm까지 높았다고 한다. 해수면이 높았다는 사실은 홍수로 인한 범람의 위험이 높았고, 동시에

범람지역도 넓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만조와 홍수가 겹칠 때 한강의 수위는 크게 상승하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청동기시대에는 댐, 제방, 배수장 등의 수해방지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비가 내리더라도 홍수로 인한 피해가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일산지방의 범람원은 대부분 인간이 생활할 수 없는 상습침수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강 하구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한강 상류의 춘천지방은 일산지방과 달리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에도 하천의 수위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범람원에서 고도가 높은 부분 즉 자연제방은 홍수로부터 비교적 안전하였음을 의미한다. 물론 당시에도 홍수는 자주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춘천지방의 범람원은 대부분 자연제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홍수 시에도 물에 잠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제방은 주변의 구릉지나 곡간충적지보다 농경에 있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자연제방은 구릉지나 곡간충적지에 비해 개간이 수월하고 개간과정에서 노동력도 덜 들어간다. 인구가 많지 않았던 청동기시대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구릉지나 곡간충적지의 개간은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곧 자연제방이 가장 경제적인 농경지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청동기시대 춘천지방의 주민들은 자연제방에 거주하면서 농경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홍수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농경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자연제방은 당시 춘천지방을 비롯한 대하천 상류 유역의 주민들에게 최적의 주거지이자 최고의 생활공간이었을 것이다.

청동기시대 춘천지방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은 당시의 유적과 유물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유물 중에는 각종 무기류, 어망추 등 수렵·어로와 관련된 것과 반월형석도, 경작용석기, 유구석부, 갈돌 등 농경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이는 청동기시대 춘천지방에서 수렵·어로와 더불어 농경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작물들이 재배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자연제방의 지형적인 특징과 토양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주변에 비해 고도가 다소 높아 물을 대기 어려운 자연제방에서는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벼농사를 지을 수 없다. 토속어로 '보명개' 또는 '보명토'라 불리는 자연제방의 토양은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벼농사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밭작물과 소채류의 재배지로는 매우 적합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면 청동기시대 춘천지방에서는 벼농사보다 밭농사 중심의 농경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중도에서 출토된 토기에서 기장이나 피 같은 곡식작물이 발견된 것은 밭농사 중심의 농경이 이루어졌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좋은 증거이다. 물론 당시 주민들의 삶을 농경이라는 하나의 측면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생활공간이 하천변의 범람원이었고 각종 무기류나 어망추 같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청동기시대 춘천지방의 주민들이 농경 이외에도 어로나 수렵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文 獻

- 건설부, 1991, 한국 수문조사 연보.
 建設部 國立地理院, 1984, 韓國地誌(地方篇 II).
 郭鍾喆, 1992, 한국과 일본의 고대 농업기술, 韓國古代史論叢, 4.
 國立中央博物館, 1980, 中島 進展報告 I 附錄 漢江流域地表調查報告.
 國立中央博物館, 1981, 中島 進展報告 II.
 國立中央博物館, 1984, 中島 進展報告 V.
 국사편찬위원회, 1997, 한국사 2 — 구석기문화와 신석기문화 —.
 權赫在, 1999, 地形學, 法文社.
 金容伯, 1990, 春川一帶 古代社會 研究,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金元龍, 1969, 文化財管理局所藏有溝石斧類-Grooved Stone Adzes in the Office of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Seoul-, 李弘植博士回甲記念 韓國史學論叢, 527-546.
 金元龍, 1972, 韓國 半月形石刀의 發生과 展開, 史學志, 6, 檀國大學校 史學會.

- 盧熾眞, 1981, 有溝石斧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89, 1-72.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1978, 정밀토양도—춘천시 및 춘성군—(한국정밀토양도 65).
- 裴基同, 1997, 한국 선사시대 석기문화에 대한 연구: 석기문화의 진화, 第四紀學會誌, 11(1), 1-23.
- 서국태, 1986, 조선의 신석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 安承模, 1985, 韓國半月形石刀의 研究 —發生과 變遷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의한, 2000, 靑銅器時代 扶餘地方의 自然環境과 人間生活, 대한지리학회지, 35(3), 489-501.
- 임세권, 1977, 춘천시 온의동 무문토기 유적, 史叢, 第二十一・二十二合輯, 75-92.
- 임세권, 1980, 춘천 중도의 선사문화 —즐문 및 무문토기를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9, 45-69.
- 池健吉·安承模, 1973, 韓半島 先史時代 出土 穀類와 農具, 韓國의 農耕文化 —京畿大學博物館 開館 特輯—, 京畿大學 出版部, 53-108.
- 최복규·정연우, 1982, 중도에서 발견된 선사유물의 연구, 江原文化研究, 2, 江原大學校 江原文化研究所.
- 春川百年史編纂委員會, 1996, 春川百年史 上.
- 한국선사문화연구소·경기도, 1992, 자연과 옛사람의 삶: 자연환경조사-고고학 발굴보고(일산 새도시 개발지역 학술조사보고 1).
- 한림대학 박물관, 1986, 신매리 지식묘 주거지 발굴 보고서.
- 한림대학교 박물관, 1996, 춘천시 서면 신매리 신매대교부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 翰林大學校 博物館·江原道·春川市, 1994, 春川郡의 歷史와 文化遺蹟(翰林大學校 博物館 研究叢書 6).
- 翰林大學校 博物館·江原道·春川市, 1997, 春川의 歷史와 文化遺蹟(翰林大學校 博物館 研究叢書 11).
- 翰林大學校 博物館·春川市, 1995, 新梅大橋 建設編入敷地 試掘調査 略報告書.
- 黃相一, 1998, 一山沖積平野의 홀로세 堆積環境變化와 海面變動, 대한지리학회지, 33(2), 143-163.
- 黃相一·尹順玉, 1998, 大邱盆地의 自然環境과 先史 및 古代의 人間生活, 대한지리학회지, 33(4), 469-486.
- Bell, M. and Walker, M. J. C., 1992, *Late Quaternary Environmental Change: Physical and Human Perspectives*,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 Brown, A. G., 1997, *Alluvial Geoarchaeology: Floodplain Archaeology and Environmental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therford, J. G., 1969, *The Freer Chinese Bronzes*, 2, Freer Gallery of Art.

(접수 : 2003. 9. 8, 채택 : 2003. 10. 15)